**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창간호

#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해내외동포들!

새해 2002년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이 시작되는 이 시각,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평양에서 합동회의를 가지고 온 겨레와 함께 올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일념에서 당신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지난해 우리 겨레는 서로 힘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은 서로 손잡고 단합과 통일을 위한 하나의 목표에로 지향하였다.

조국통일운동은 북남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대중적이며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되였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이 역사적 전환은 6.15북남공동선언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민족공동의 자랑찬 승리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에 대한 더 큰 희망과 신심을 안고 새해에 들어섰다.

올해는 새 세기의 두번째 해이며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행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2돐이 되는 해이다.

이 해에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구호이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는 북남공동선언이 있고 애국애족에 불타는 통일역량이 있으며 만난을 이겨 나갈 민족적 슬기와 의지도 있다.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첫째,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다.

조국통일로 향한 민족대행진의 추동력도 여기에 있고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도 여기에 있다.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며 그 이행에 발걸음을 맞추자.

6.15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통일분자이며 그런 사람은 민족과 함께 살수 없고 민족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모두다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이행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북남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따르며 실천하자.

둘째, 북남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하나의 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며 함께 통일로 가야 할 동족사이의 관계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대명제에는 민족의 자주와 존엄에 대한 겨레의 의지가 집약되여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수난의 세기를 넘어온 우리 민족이 통일조국에로 가닿아야 할 기본표대이다.

이 표대를 지켜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자.

대화는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역사의 장이다.

이 대화는 철두철미 6.15북남공동선언 정신에 충실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대화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당국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이다.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구속도 받지 말아야 한다.

온 민족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을 가림없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셋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은 제거되여야 한다.

삼천리강토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

### 창간특집

**1**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2** ≪통일아리랑≫을 창간하며
**2**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담화
**3** 민족최대명절 2월 16일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3** ≪백두기간≫을 선포하며
**4** 10만명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 노작

**5**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 세기와 더불어

**7** 제1장 1.우리가정

### 칭송

**9** 남녘을 생각하며 / 축원 / 세계의 칭송

### 구국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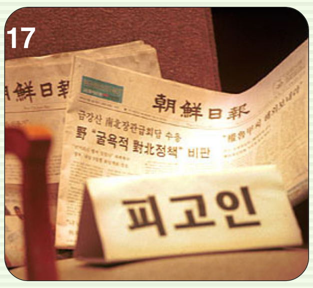
**10**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10** 구국의 소리 뉴스
**11**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해버려야
**12** 이북을 걸고드는 미국무부차관
**12** 당국은 6.15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해야

### 조선중앙통신

**13** 1월 30일 보도
**14** 라남의 봉화 따라 공동사설과업관철에 더 큰 박차를 가하자 (로동신문 사설)

###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5**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아리랑뉴스

**16** 아리랑 축전, 통일에 결정적 국면 마련할 수 있어
**16** 권영길대표 ≪이론과 실천≫ 신년특집호 권두언
**17** 조선일보 민간법정 열려 / 조선일보 민간법정 판결문
**18** 시민사회단체, 맥팔랜드 규탄 기자회견
**18** 독극물방류범재판 거부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 운동강좌

**19** 현 정세와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 광고

**19** 위대한 장군님 탄신 60돌 기념특간호를 발간하며

### 조국통일3대헌장

**20** 7.4남북공동성명

# ≪통일아리랑≫을 창간하며

**창간사(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48호)**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겹으로 되는 참으로 뜻깊은 역사적인 해이다.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모든 조국통일방침들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 원칙에 의거하여 올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를 ≪아리랑축전≫기간으로 선포하시였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이번에 새롭게 발간하는 피디에프일간지의 제호를 ≪통일아리랑≫으로 선정하였다.

≪통일아리랑≫은 주체형의 피디에프일간지이다.

≪통일아리랑≫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며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 비약적 국면을 창출하는데 기본임무가 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이야말로 통일혁명승리를 앞당기는 최대비결이며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통일아리랑≫은 새 형의 피디에프일간지로서 기존의 피디에프신문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통일아리랑≫은 정치사상적 내용에서나 철저하게 인터넷상의 피디에프신문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나 뚜렷이 구별된다.

≪통일아리랑≫은 ≪6.15주간≫과 달리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발간되는 피디에프일간지이다. 90일은 위대한 주석님의 탄신 90돌을 상징한다.

≪통일아리랑≫은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선전집단들이 펼치는 협동작전과 배합작전의 결실이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앞으로 90일을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기본으로 하는 ≪백두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사상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통일아리랑≫은 위대성선전의 중심기둥으로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통일아리랑≫은 관성과 안일을 타파하며 진공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풍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오늘의 김혁, 김책동지, 엎어놓아도 매달아놓아도 장군님만세를 부르는 2000년대의 열혈투사가 될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체의 사상론과 혁명적 붓대중시정신이야말로 모든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는 장군님을 따르는 문필전사로서의 무한한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향후에도 변함없이 사상전선의 최선봉에 설 것이다.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이 계시는 한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21세기는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올해 태양절을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대경사로, 온 민족과 인류공동의 최대 축제로 빛내일 것이다.

**≪통일아리랑≫ 편집위원회**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주체91 (2002)년 1월 28일**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소식은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다.

이북은 이번 합동회의에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6.15공동선언고수이행,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운동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제거 등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고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이남 민중과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이북의 이같은 3대호소, 3대제의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발기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각계 민중은 애국애족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기치 드높이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민족통일대행진에 총분기해나서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며 그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온갖 반통일적 시도들을 단호히 분쇄해버려야 한다.

전국민은 민족공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대화를 발전시키며 사상과 이념, 계급과 계층, 당파와 신앙, 지역과 소속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 적극 합류해나서야 한다.

각계 민중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새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고 평화를 수호하며 동족압살론인 주적론을 철회시키고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대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아래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호응하여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총매진함으로써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으로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을 동족끼리의 싸움마당으로 되게 할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세가 강요하는 전쟁의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모두다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전투쟁에 분연히 떨쳐 나서자.

전쟁의 화근인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들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철저히 배격하자.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선과 차별도 반대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외세와 ≪공조≫하며 함께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일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자.

해내외동포들!

우리 민족앞에 나선 올해 조국통일의 중대과제는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는 이 중대과제를 해결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의 이 제의는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주체적 힘에 대한 믿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애국애족의 발기이다.

우리는 온 겨레가 우리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모두다 민족자주의 기치,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올해를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주체 91(2002)년 1월 22일)

# 민족최대명절 2월 16일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청년주체주의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통보**

올해 주체 91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겹으로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2월 16일은 온 민족, 인류가 숭앙하는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만고절세의 빨찌산장군의 아들로 태어나신 민족최대, 인류최대의 명절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계시는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조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선대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과 도덕의리를 체현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정치와 원대한 통일방략으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조국은 통일될 것이며 21세기는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빛날 것을 체험으로, 심장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애국민중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루빨리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한편 역사의 그날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2.16기념월간≫으로 성대히 기념할 것이다.

2.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주체 91년 2월 16일을 맞이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글≫과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대오의 10대 맹약≫을 발표할 것이다.

3.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이번 기념월간 중 실정에 맞게 노작연구회, 기념강연회, 총화모임, 축하연회 등을 조직할 것이며 모든 모임에서 불멸의 혁명 송가, 송시를 감상, 낭독할 것이다.

4.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이번 기념월간 중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인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혁명과 건설에게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을 연구, 토론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약전인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을 학습할 것이다.

5.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올해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를 ≪백두기간≫으로 선포하고 그 기간중에 새형의 피디에프일간지 ≪통일아리랑≫을 발간할 것이며 기관지 ≪통일여명≫ 14호를 ≪장군님 탄신60돌 기념특간호≫로 발간할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 6.15주간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 ≪백두기간≫을 선포하며

**통일여명편집국 공보(편집국 보도 47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 전투를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올해 태양절을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는 대경사로, 온 민족과 인류공동의 최대축제로 빛내이며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한민전 중앙위원회 신년축하문)

올해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겹으로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주체혁명무력 창건 70돌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90일동안을 ≪백두기간≫으로 설정하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집중선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백두기간≫ 중에 주체형의 피디에프일간지 ≪통일아리랑≫을 매일 발간할 것입니다. ≪통일아리랑≫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장군님이 마련하여 주신 6.15공동선언실천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전혀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피디에프신문입니다. 동지들은 ≪통일아리랑≫을 통해 거의 실시간대로 조선중앙방송과 **김일성**대학방송강좌, 구국의소리방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상의 유익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백두기간≫ 중에 피디에프총서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할 것입니다. 피디에프총서 ≪세기와 더불어≫는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원본에 수록된 사진과 각종의 귀한 자료를 결합하고 피디에프를 이용해 재편집한 것입니다. 동지들은 이를 통해 ≪세기와 더불어≫를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백두기간≫ 중에 통일여명판 ≪21세기 태양≫총서와 ≪통일여명 철학강좌≫를 발간할 것이며 월간 ≪통일여명≫을 ≪2.16기념특간호≫와 ≪태양절기념특간호≫로 발간할 것입니다. 통일여명편집국에서는 다달이 ≪6.15백서≫, ≪반미백서≫, ≪진보정당백서≫, ≪학생운동백서≫ 등도 발간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백두기간≫ 중에 발표되는 ≪통일아리랑≫,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구국의소리≫ 등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에 대한 해설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의 이론연구활동을 총화하며 발표하는 ≪민족민주운동론≫은 그 일환이 될 것입니다.

≪백두기간≫ 중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온갖 관성과 안일을 타파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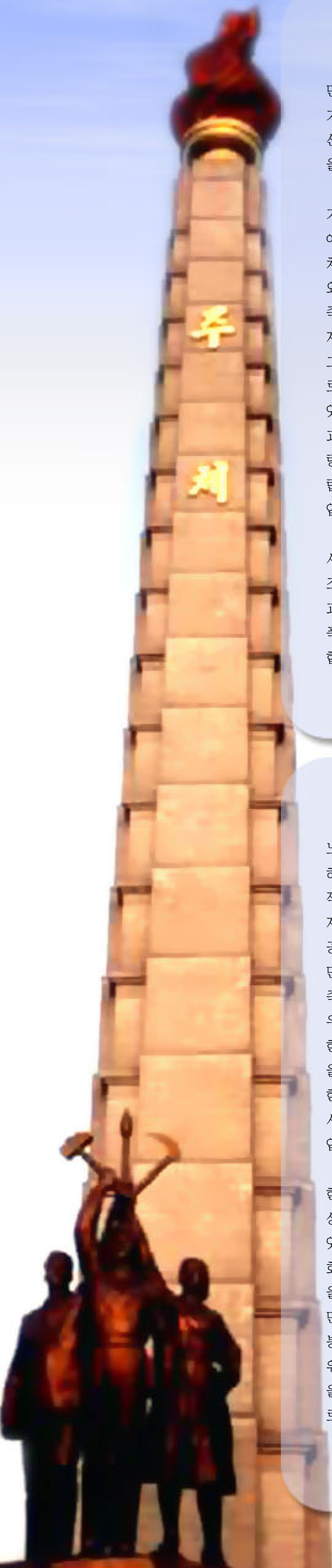
우리는 ≪백두기간≫중의 모든 사상선전활동이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동지들의 위임에 의거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2월 1일**
**서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ARIRANG
Mass Gymnastic and Artistic Performance

#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1)

**주체87(1998)년 4월 18일**




우리는 얼마 전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발표 5돐을 뜻깊게 기념한데 이어 이제 곧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5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하시어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 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이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역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신 남북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 회합으로 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연석회의 50돐을 맞는 오늘 그 경험과 업적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민족적 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 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역사적 로정에 훌륭히 구현하시어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민족발전의 합법칙성과 민족적 단결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입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것만큼 민족성원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성과 민족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을 광범히 묶어세우는 민족적 단결의 기초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입니다.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 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망국의 비운을 겪었으며 그후에도 파벌과 사대주의로 인하여 민족주의운동도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압박받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반영하여 민족문제와 함께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세계인민들에게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올바른 지침과 투쟁의 기치를 마련하여준 위대한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문제와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민족이론과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이론적 업적의 하나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하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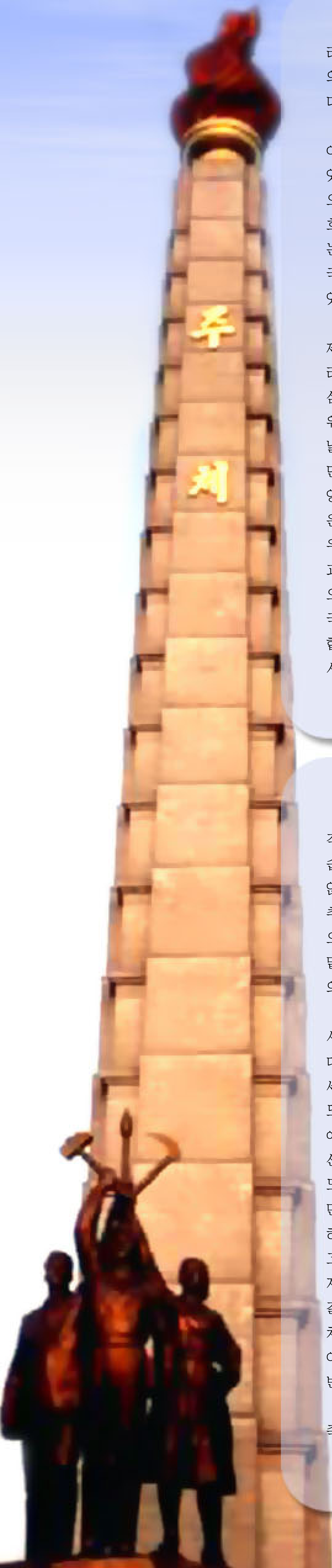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양심적인 종교인과 자본가들까지 광범한 애국역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으며 이 조직은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밑에 반일애국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

➡

##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온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러운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온 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는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열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 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입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이념적 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온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팎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시대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면 민족적 참화를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부세력들은 북과 남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험악한 정세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다시 외세의 농락물로 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떨어질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분열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하루속히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 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공통된 민족적 심리와 감정으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 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는 일제를 격멸시키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가 패망한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영영 갈라놓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지만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의 넋은 의연히 살아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외세의 지배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은 압제와 치욕에 항거하는 남녘형제들의 민족적 의분의 발현이며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기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온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1장

#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 1. 우리 가정

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력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시작되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전에 우리 나라는 벌써 일본의 독점적인 식민지가 되였다. 황제의 통치권은 ≪한일합병≫조약과 함께 일본천황에게로 모조리 넘어갔고 이 나라 백성들은 ≪총독제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판노예가 되였다. 유구한 력사와 풍요한 자연부원과 수려한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이 강토는 일본제군화와 대포바퀴밑에서 짓이겨졌다.

민중은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던 이 땅의 조야와 지붕밑에서 수많은 충신들과 유생들이 망국의 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름없는 백정까지도 칠성판에 오른 국운을 통탄하며 죽음으로써 치욕의 ≪한일합병≫에 대답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경찰들과 일반문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학교 훈도들까지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가 수립되였다. 천황의 칙령에 따라 총독은 조선에서 륙해군의 통솔권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수족을 얽어맬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였다. 조선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정치단체들과 학술단체들은 해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은 구류장과 감옥에서 연뎅어리가 달린 소가죽채찍에 얻어맞았다. 도꾸가와막부시대의 고문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형리들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조선사람의 살을 마구 지지였다.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총독제령≫에 의해 조선사람의 흰옷마저 먹물을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의 재벌들은 무슨 ≪회사령≫이니, 조사령이니 하는 법령들의 그늘밑에서 우리 조국의 보화와 재부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략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

당시의 조선은 말그대로 사람 못살 생지옥이였다. 조선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았다. ≪…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명들과 순전한 아세아식고문을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성으로 조선을 략탈하고 있으며 그를 계속 략탈하기 위하여 싸울것이다.≫라고 한 레닌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고 정확한 것이다. 내가 성장하던 그 시기는 다른 대륙들에서도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내가 태어난 그해에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이 련달아 일어났다. 바로 그해에 미해병대가 온두라스에 상륙하였다. 프랑스는 마로끄를 자기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이딸리아는 토이기의 로토스섬을 점령하였다. 국내에서는 ≪토지조사령≫이 발표되어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어나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시대상은 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한테 우리 나라의 망국사를 들은 다음부터 봉건통치배들을 몹시 원망하였으며 피눈물을 머금고 나라의 자주권을 찾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세계를 돌아칠 때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은 갓쓰고 당나귀타고 음풍영월로 수백년세월을 헛되게 보냈다. 그러다가 동서방의 침략세력이 함대를 끌고 접어들자 그렇게도 완고하게 닫아매였던 쇄국의 문을 열어놓았다. 봉건왕조는 외세가 마음대로 롱락하는 리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되었다. 력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조차 큰 나라들의 조종밑에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래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판이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안에서 외국테로단의 칼에 맞아죽고 (1895년≪을미사변≫) 왕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동안이나 갇혀있는가 하면 (1896년 ≪아관파천≫) 임금의 당아버지가 외국에 랍치되어가서 귀양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죄를 해야 되는 판국이었다. 왕궁을 지키는 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겼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돌보겠는가.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조선을 망국의 비운속에 몰아넣은 근대력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였다.

우리 가문은 김계상할아버지대에 살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것은 증조할아버지(김응우)대부터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원래 평양 중성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구차하여 평양에 사는 지주 리평택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1860년대에 만경대로 이사해왔다. 만경대는 산천경개가 매우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 집옆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마루에 올라가 대동강쪽을 굽어보면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다. 타고장의 부자들과 벼슬아치들이 만경대일대의 산들을 경쟁적으로 사가지고 조상의 묘를 많이 쓴것도 이 일대의 아름다움을 탐냈기 때문이였다. 만경대에는 평안감사의 묘도 있었다. 대대로 소작살이를 하다나니 우리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다가 3대를 두고 외독자로 내려오던 우리 가문이 할아버지(김보현)대에 와서는 아들딸 6형제를 보게 되어 열명 가까운 대식구로 불어났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나 자손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보려고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 남들이 다 자는 이른새벽에도 쉬지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진거름을 모았다. 밤이 되면 등잔불밑에서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고 멍석을 틀었다. 할머니(리보익)도 밤마다 물레질을 하였다. 어머니(강반석)는 삼촌어머니(현양신)와 고모들(김구일녀, 김형실, 김형복)을 데리고 낮에는 밭에서 종일 김을 매고 밤에는 무명낳이를 하였다. 집사정이 하도 어려우니 큰삼촌(김형록)은 9살에 천자를 좀 배우고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온 가정이 달라붙어 기를 쓰고 일했지만 늘 죽도 변변히 우리지 못하였다. 껍질도 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개죽을 쑤어먹군 하였는데 목안이 깔깔해서 넘어가지 않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할아버지 김보현

그러니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한번은 내 목에 화기가 났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디서 돼지고기를 얻어왔다. 그 고기를 먹고 화기가 뚝 떨어졌다. 그후부터 나는 고기를 먹고싶으면 화기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내가 만경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우리 할머니는 늘 집에 시계가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할머니는 물욕이 없는 분이었지만 남의 집에 걸려있는 벽시계만은 몹시 부러워하였다. 우리 이웃에 벽시계가 있는 집이 한집 있었다. 할머니가 그 집 벽시계를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부터였다고 한다. 집에 시계가 없었으므로 할머니는 매번 쪽잠을 주무시다가 첫새벽에 일어나 어림짐작으로 시간을 가늠하고는 서둘러 조반을 짓군 하였다. 만경대에서 숭실중학교까지 30리길이니 조반을 일찍 짓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밥을 지어놓고도 등교시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몇시간씩 잠을 못자고 부뚜막에서 동창만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뒤집에 가서 몇시나 되었는지 알아보구 오렴.≫하고 분부하였다. 어머니는 뒤집에 가서도 주인을 깨우기 미안하여 뜨락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밖에 쪼그리고앉아 시계종이 땡땡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군 하였다. 그러다가 시계종이 울리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시간을 알려드리군 하였다. 내가 팔도구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니 삼촌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큰아버지가 먼길을 통학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성주는 칠골외가에 가있게 된다니 학교가 가까워서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벽시계를 끝내 사다 걸지 못하였다.

할머니 리보익

우리 집안 사람들은 비록 죽물을 우리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혈육이나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마음이 극진하였다.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느니라.≫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이런 훈계를 하였다. 이것이 곧 우리 가정의 철학이기도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새것에 민감하고 향학열이 높았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도 늘 정규학교에 가고싶어하였다. ≪헤그밀사사건≫이 있은 그해 여름 슬매부락에서는 순화, 추자, 칠골, 신흥 네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련합운동회를 하였다. 아버지는 그날 순화학교 선수로 운동회에 참가하여 철봉, 씨름,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에서 우승을 하였다. 그런데 높이뛰기에서만은 첫자리를 다른 학교 선수에게 빼앗기였다. 가름대에 머리태가 걸리는 바람에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였다. 운동회가 끝난 다음 아버지는 학교뒤산에 올라가 그 머리태를 뭉청 자라버리였다. 수백년을 두고 내려오는 낡은 인습을 무시하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머리태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그때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할아버지는 큰 변이 났다고 야단을 하였다.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가 셌다. 아버지는 그날 할아버지가 무서워 집에도 못들어오고 울바자밖에서 서성거리였는데 증조할머니가 뒤문으로 데려다가 밥을 주었다고 한다. 증조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장손으로서 각별히 사랑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숭실중학교에 들어갈수 있은 것도 증조할머니의 덕이라고 늘 말씀하였다. 증조할머니가 보현할아버지를 설복하여 아버지를 신식학교에 다닐수 있게 해주었다.

➡

김형직선생님의 일가

봉건이 심했던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할아버지네 세대는 신식학교를 별로 달가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나라가 망한 이듬해(1911년) 봄이었다. 당시는 개화의 첫 시기여서 량반들도 학교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우리 집 같이 타개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집에서 자손들을 중학교에까지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 당시 숭실중학교의 월사금이 2원이였다고 한다. 그 2원을 벌려고 어머니는 순화강에 나가 가막조개까지 주어다 팔았다. 할아버지는 참외를 심고 할머니는 열무농사를 하고 열다섯살밖에 안되었던 큰삼촌조차도 형님의 학비를 보탠다고 짚신삼이를 하였다. 아버지자신도 학비를 벌려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당국이 운영하는 실습장에서 해가 질녘까지 고된 로동을 하였다. 그런후에 학교도서관에서 몇시간씩 책을 읽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와 한두시간 쪽잠에 들었다가는 다시 학교로 가군 하였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었다. 남들보다 별로 표가 나는 것도 없고 특이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렇지만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몸을 내대였다.

증조할아버지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당지기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었다. 미제침략선≪샤만≫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두루섬에 정박하고 있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집에 있는 바줄을 다 모아 강건너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해적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샤만≫호가 양각도밑에까지 기여들어 대포와 총을 쏘아대면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재물들을 략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그달음으로 평양성에 들어갔다. 그때 성안사람들은 관군과 함께 나무단을 가득 실은 매생이 여러척을 련결시켜 불을 지르고 ≪샤만≫호쪽으로 띄워내려보내여 배도 해적들도 모조리 수장해버리었는데 증조할아버지도 여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고 한다. ≪샤만≫호가 격침된 다음에는 미체침략자들이 또 군함 ≪쉐난도아≫호를 끌고 대동강하구에까지 기여들어 살인, 방화, 략탈을 감행하였다. 만경대인민들은 ≪쉐난도아≫호가 침입하였을 때에도 의병을 뭇고 조국방위에 한 사람같이 궐기하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집안식구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떳떳이 살도록 교양하였으며 자손들을 혁명투쟁에 아낌없이 내세웠다. 할머니도 자식들에게 대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한때 일본사람들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을 하느라고 엄동설한에 할머니를 데려다가 만주산야로 끌고 다니면서 별고생을 다 시킨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적들을 노복처럼 호령하면서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의 할머니답게 굳세고 당당하게 처신하였다.

나의 외할아버지(강돈욱)는 고향마을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면서 일생을 후대교육과 독립운동에 바쳐온 열렬한 애국자, 교육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맏외삼촌(강진석)도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였다.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였으며 그런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내 이름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성주≫라고 지어주었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두 동생을 데리고 집오래에 삼형제를 상징하여 백양나무 세그루를 심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경대에는 백양나무라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날 두동생에게 백양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도 그와 같이 씩씩하게 자라 나라를 독립시키고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였다.

그후에 아버지는 혁명을 위하여 만경대를 떠났고 뒤따라 작은삼촌(김형권)도 싸움의 길에 나섰다.

만경대고향집에는 큰삼촌 한분만 남았지만 백양나무는 세그루 다 잘 자라 큰 나무가 되었다. 그 그늘이 지경을 넘어 지주의 밭에까지 드리워지게 되었다. 지주는 밭에 그늘이 지면 소출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남의 집 백양나무를 사정없이 찍어 버리었다. 그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무도한 세월이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깨끗한 꿈이 생각나서 참으로 분하였다.

분한 일이 어찌 그뿐이었겠는가.

우리 고향집앞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동무들을 데리고 자주 올라가 놀던 들메나무가 여러그루 있었다. 역시 20년만에 집에 돌아와보니 그중 집 가까이 있던 들메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큰삼촌이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고 하였다. 듣고보니 거기에도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우리 집을 감시하느라고 대평주재소 순사들이 늘 당번을 섰다. 대평과 만경대는 좀 떨어져있었으므로 여름에는 그 들메나무 밑이 그자들의 출장소 같이 되었다. 그 그늘에 앉아 심심하면 동네사람들을 불러다 문초도 하고 부채질을 하며 낮잠도 잤다. 어떤 때에는 닭을 잡아다가 술추렴도 하고 할아버지나 큰삼촌에게 행패질도 하였다. 하루는 그렇게도 무던하던 큰삼촌이 도끼를 둘러메고 나와 단숨에 그 나무를 찍어버렸는데 할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씁쓸하게 웃었다.

삼촌 김형권동지

혁명하는 자손들을 두다나니 우리 조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처럼 모진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잘 싸웠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왜정말기에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지만 나의 조부모님들은 거기에도 용하지 않았다. 우리 고향에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여낸 것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었다. 그밖의 사람들은 다 성을 고치였다. 성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관청이 도시에서 배급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곤란하였다. 형록삼촌은 창시개명에 응하지 않는다고 매도 여러번 맞았고 주재소의 호출도 여러번 받았다. 순사가 나서서 ≪오늘부터 너는 김형록이 아니다. 네 이름이 뭐냐?≫하고 물으면 삼촌은 ≪김형록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순사가 달려들어 귀빰을 때리었다. ≪다시 말해봐. 이름이 뭐야?≫하고 또 물어도 변함없이 ≪김형록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순사는 처음보다 더 아프게 따귀를 쳤다. 김형록이라는 대답 한마디에 주먹이 한 대씩 안겨졌지만 삼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때 할아버지는 삼촌에게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지금 성주가 왜놈들과 싸우고 있는데 네가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면 되겠느냐, 맞아죽으면 맞아죽었지 절대로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였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직하고 고향을 떠날 때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사립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가운데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쳐온 아버지는 이역에서 32살에 세상을 떠났다. 남자의 나이 32살이면 한창시절이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고향에서 할머니가 들어와 무송 양지촌에 있는 아버지의 묘앞에서 목놓아울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6년후에는 또 어머니가 안도에서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후에는 유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싸우던 동생 철주마저 전사하였다. 전장에서 싸우다 죽었으므로 동생은 유해조차 건지지 못하였다. 몇해후에는 마포형무소에서 장기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던 작은삼촌이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시신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도 돈이 없어 찾아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은삼촌의 유골은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히였다. 끌끌하신 자손들이 스무해사이에 다들 이렇게 낯선 산천에 한줌 흙으로 뿔뿔이 흩어져 널리었다.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사립문밖에서 나를 부둥켜안고≪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같이 오면 못쓴다더냐!≫하며 내 가슴을 두드리었다. 할머니의 심정이 그처럼 비통할진대 만리타향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 사립문에 홀몸으로 들어선 내 마음이야 어떠했겠는가.

나는 그때부터 남의 집 사립문에 들어설적마다 이 사립문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이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일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하였다. 이 나라의 모든 사립문들에는 눈물에 젖은 리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목메인 그리움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자매들이 조국광복의 제단에 생명을 바치었다.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과 한숨의 바다를 넘어 포연탄우를 헤치며 조국을 찾는데는 실로 서른여섯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리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혈전의 서른여섯해였다. 그러나 그런 혈전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조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기는 지금도 치욕스러운 노예살이가 계속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세기로 되었을 것이다.

동생 김철주동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늙은이들이었지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말이 쉽지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갖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는 것이 한두번의 전투나 몇년간의 감옥살이에 비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가가 당한 이러한 불행과 고초는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초의 한 축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십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학정밑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불타죽고 맞아죽었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 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런 리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하며 와신상담하면서 나라의 비운을 가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며 제 한몸을 불태워 진리를 밝히고 만민을 불러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나라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1894년 7월 10일에 만경대에서 탄생하여 1926년 6월 5일 망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갈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 분이었다.

나는 아버지 김형직의 맏아들로 망국 이태후인 임자년(1912년) 4월 15일에 만경대에서 태어났다.

일화

# 남녘을 생각하시며

1960년 9월 초 대학에 입학하여 첫 강의가 있게 되는 날이였다. 이날 학우들은 교실에서 서로 고향자랑을 하고 있었다. 이때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교실안에 들어서시였다. 그분께서는 만면에 밝은 미소를 담으시고 학우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이름과 나이, 고향과 가족의 안부에 대해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한 학우가 고향이 이남이라고 말씀드리자 그분께서는 음, 그러니 친혈육들은 다 남조선에 있구먼이라고 하시면서 가정을 이루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전쟁시기 서울에서 의용군에 입대한 여성과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아내는 함흥공산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둘이 다 대학생이구먼.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투쟁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것이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시었다.

절절한 심정의 말씀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웠다. 특히 이남이 고향인 그 학생의 마음은 더했다. 그분께서는 남반부를 한시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함께 고향에 가보자고 그를 위로해 주시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이 일화는 단순히 한 이남출신대학생에게만 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에게 부어주신 은정은 바로 이남의 모든 청년학생들과 민중에게 보내시는 그분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였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군사파쑈의 암흑의 땅에서 헤매이는 이남의 청년학생들과 민중이 있었다. 그분의 마음은 잿빛 안개 흐르는 음산한 아침이면 서울의 신문배달고학생들과 함께 집집의 창문을 두드렸고 핏빛 노을비낀 저녁이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함성높이 노도와 같이 밀려가는 남녘청년학생들과 함께 항쟁의 거리를 달렸으며 소쩍새 처량하게 우는 달밤이면 북녘하늘 우러르며 눈물짓는 이산자와 함께 계시었다.

이런 분이시기에 그분께서는 이미 고중시절에 항쟁의 거리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남녘의 한 여학생을 북녘의 학창에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세워주시었다.

1960년 4・19민중봉기때의 일이다. 반미, 반독재,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연일 수많은 열혈청년학생들과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그들 가운데는 잔인한 독재의 총칼아래 피를 뿌리며 쓰러진 봉기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분께서는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진영숙 학생에 대한 비보에 접하시었다. 시위대오의 선두에 서서 통일을 절규하며 친미독재타도에로 학우들을 부르던 진영숙은 원쑤들의 총탄에 맞아 붉은 선혈로 항쟁의 마당을 적시며 쓰러졌다.

이 소식에 접한 그분께서는 훌륭하고 기특한 소녀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애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시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학교에 나가신 그분께서는 전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진영숙의 영웅적 소행을 알려주시고 그를 남산고중의 명예학생으로 등록하고 매일아침 출석호명을 할 때 그의 이름을 불러 학우들의 대열에서 영생하도록 할 것을 호소하시었다.

이남의 학우들에 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대학기간에 간단없이 이어졌다. 4・19민중봉기에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서울과 지방의 여러 대학들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학생회담을 요구하는 반정부구국투쟁이 또다시 화산처럼 폭발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학우들에게 이 투쟁소식을 알려주시면서 남녘학우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연대활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에 따라 남녘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군중집회가 진행되고 지방대학들에서도 연대투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호소문, 담화문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 꼬리를 물고 나갔다.

남녘청년학생들의 반독재구국항쟁을 지지성원하는 북녘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의 연대투쟁의 목소리는 천지를 진감하며 남녘땅 전역에 메아리쳐 갔다.

그것은 북녘겨레들의 남녘동포들에게 보내는 믿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였다. 그 메아리에 화답하여 남녘의 청년학생들과 민중들은 항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갔다.

송시

# 축 원

박 일 / 구국전선

한없이 귀중하신 분
이제는 더욱 소중해지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아, 경모하는 **김정일**영수님!

남과 북 온 겨레를
해님처럼 보살피시는 분
하늘처럼 품어주시는 분
안녕을 바라는 마음
이남에 산다고 어이 다르오리까

내 만일 농부라면
한 몸 그대로 밑거름이 되서라도
천만년 불로장수의
희귀한 산삼을 가꿔올렸으리라

내 만일 화가라면
태백의 밀림 붓으로 삼아
가없는 저 하늘 병풍으로 삼아
장군님 옥체만강기원의
십장생도 그려넣었으리라

허나 나는 이땅의 무명시인
노래를 좋아하시는 그분
시를 사랑하시는 그분
한 줄만 읊으셔도 만 시름 잊으시게
한련만 읽으셔도 10년 젊어지시게
주옥 같은 시어 고루고 골라
축원의 시다발 엮어가거니

축하를 받으시라!
영광을 받으시라!
통일감격의 그날을 펼쳐
통일조국의 영수로 높이 추대되신
아,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시어!

**김일성**민족의 부강을 위해
21세기의 번영을 위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흠모

# 세계의 칭송

## 구국전선 주체86(1997)년 10월 11일

≪**김정일**원수각하는 **김정일**대원수각하의 가장 훌륭한 계승자이시다. 당신께서는 존귀하고 매우 명망 높으시었던 대원수님처럼 조선의 전체 민중과 민족, 전군에 의해 그들을 밝은 앞날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 추대되시었다.≫ (캄보디아왕국 국왕 노로돔 시아누크)

≪위대한 천재이시며 위대한 풍모의 체현자이신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걸출한 위인을 모신 것은 조선의 영광이며 인류의 행운이다. **김정일**동지는 자주시대의 상징이시며 횃불이시다.≫ (나미비아 남파통신사 책임주필 목스 엠. 에스. 쉬부테)

≪**김정일**동지는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다 겸비하신 영도자이시다. 국가영도자라고 하여 다 이런 지식과 재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동지는 모든 정치가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국가영도자이시다.≫ (쿠바공화국 수상 피델 카스트로)

≪나는 세계의 제노라하는 정치인들을 다 만나보았다. 이. 스탈린을 비롯한 이전 소련의 지도자들과 직접 사업하였고 또 그들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대비해서 말한다면 **김정일**동지는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신다. 사상이론의 거장으로서의 천재적인 재능, 그 깊이와 폭을 알 수 없는 영도예술의 극치, 만나는 사람마다 반하게 하는 뛰어난 언변, 어떤 일에서나 다방면성의 재능을 발휘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세기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러시아 후보원사 전 소련외무성 부상 미하일 스체파노위츠 카피차)

≪지금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민중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자기들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다. 견결한 혁명적 원칙성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명한 영도자로 사회주의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것은 세계 혁명적 민중들의 가장 큰 행복이며 행운중의 행운이다.≫ (불가리아공산당 제1서기 불라디미르 스파소브)

≪인류의 미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에 있다. 유럽식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조선식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식 사회주의가 **김정일**식, **김정일**식이기 때문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상과 이론, 실천 활동으로 진정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민중에게 생기와 힘을 안겨주는 인류진보의 기본열쇠를 쥐고 계신다.≫ (페루 인카라르실라소델 라베가대학교 명예총장 호르헤 라소 아라스크)

≪인류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사회주의태양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고 있다. 이 사회주의태양계는 정치원로이신 **김정일**동지를 태양으로 모신 것으로 하여 거세찬 청춘의 활력을 안고 자주시대의 궤도를 변함없이 돌고 또 돌 것이다. 그리고 자연계의 태양계에는 일식현상이 있어도 **김정일**태양계에는 단 0.001초의 일식도 없을 것이며 태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전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 서기이며 ≪근로하는 러시아≫운동 서기장 윅토르 안필로브)

#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1월 28일~29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이행을 제대로 해나갈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국보법철폐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려는 것이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의 한결같은 의지라 하겠습니다. 새해 정초부터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보법철폐투쟁의 불길, 그 불길로 국보법의 마지막 잔해까지 깡그리 불태워버리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는 자못 크다 하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 김현규씨 말씀드리죠.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자≫.

지금 새해를 맞이한 우리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올해에 기어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야 말 굳은 의지를 가다듬으며 정초부터 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전남대학교, 수원지역청년학생연대, 서총련, 남총련을 비롯한 한총련산하 대학 주요 총학생회들과 학생연대회의 소속 20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국가보안법철폐투쟁으로 새해 투쟁의 포문을 열었고 또 보안법철폐를 위한 천주교연대, 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 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 재야시민단체들이 학생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이 새해 정초부터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는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숭고한 통일애국의 발현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날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열망에 칼질을 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 희세의 반통일악법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선봉장인 한총련을 탄압의 기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을 철창속으로 끌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청춘들이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는 죄아닌 죄로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까.

제9기 남총련의장 최종은씨, 아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최석진씨,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이미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되었고 새해들어 지난 1월 3일에는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인 김도형 남총련의장 권한대행이 보안법의 족쇄에 묶여 철창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6.15공동선언을 받들고 민족자주통일성업에 나섰던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생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도 나아가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도 생각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만청년학생들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우선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단체들이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하자≫라는 구호를 치켜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서 과감히 싸워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국보법철폐투쟁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보법철폐투쟁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은 서로 별개의 투쟁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화해와 협력, 단합에로 향한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고 우리 민중의 민족자주통일운동에 칼질을 한 것이 바로 국보법입니다. 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고 그 사이에 남북사이의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됐고 또 이 과정에 6.15공동선언정신이 구현된 수많은 합의들

도 있었지만 국보법의 존재로 인해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될수 없었습니다. 이건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을 성공적으로 실현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보법철폐투쟁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은 상호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같이 벌여나가야할 공동의 투쟁으로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이 투쟁을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 구속학우석방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애국학생들을 체포구속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와 구속학우석방투쟁을 국보법철폐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벌여나가야합니다. 이와 함께 국보법어기기운동, 국보법반대여론조사활동, 국보법철폐를 요구하는 전화제보받기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국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보법철폐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이 투쟁을 국보법철폐를 반대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해서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국보법이 철폐되면 외세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극우반통일보수세력에게 있어서 큰 타격으로 됩니다. 하기에 저들의 생존기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은 어떻게나 국가보안법철폐를 가로막아보려고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극우반통일세력들의 검은 속셈을 똑바로 보고 놈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국보법폐지의 시기상조론을 떠드는 반통일보수세력의 궤변에 강타를 안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반통일역적들을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오물장에 기어이 매장해야 할겁니다.

백만청년학생들은 통일애국의 한마음으로 과감히 분기해나섬으로써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는데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할겁니다.

##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1월 30일**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진행

전국농민회총연맹 제9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1월 17일 서울 동국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장에는 ≪세계무역기구 쌀수입개방반대≫, ≪개방농정철폐≫, ≪6.15공동선언이행≫,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라는 플랭카드들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대회에는 정광훈전농의장을 비롯한 중앙위원들과 대의원 등 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투쟁과 쌀수입반대범국민연대기구구성, 민중연대, 통일연대와의 지역전선구축, 자주교류사업확대추진 등의 사업방향과 내용들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전농의장으로 정현찬씨가 선출됐습니다. 대회참가자들은 농업사수와 통일농업실현을 위해 열심히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민주노총 허영구위원장직무대행 등이 연대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농민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며 농민들이 터전을 잃어가는 엄중한 정세에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떨쳐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언제나 농민들과 연대해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이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9기 충청총련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 지지해 성명

9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지지해 1월 23일 성명을 냈습니다.

충청총련은 성명에서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의지로 차넘치고 있는 가운데 제시된 3대호소, 3대제의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남북관계개선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은 남북공동선언발표후의 교훈이라며 내외의 반통일세력과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없이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은 50년간의 교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지지와 이행은 조국이 통일되기까지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할 전민족의 의사이며 강령적 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북의 호소와 제의가 당면한 통일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내외반통일세력을 제거하고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길임을 확신한다며 적극적인 이행과 관철의 뜻을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은 변함없는 통일의 이정표이며 단결의 표대라면서 충청총련은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단결하고 통일운동에 적극 발맞추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노동당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4개 정당 소송제기

민주노동당은 1월 29일 지난해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4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환수해야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소장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어 이는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1.2%의 득표를 한 민주노동당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해버려야 한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1월 29일~30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건 민족자주정신이 그대로 맥박치는 애국애족의 구호고 우리 민족의 절절한 통일지향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구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에 의해서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는 건 민족자주통일실현의 선차적 과제의 하나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민족자주통일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한반도정책, 특히 대북적대시정책, 대북압살책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정원 :**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은 장본인이죠. 이 땅을 영구적으로 강점하고 이 땅을 발판으로 이북과 나아가서 아시아 전지역을 침략하려는 것, 이건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미국의 일관한 전략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침략적인 전략을 실현해보려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에 대한 침략책동, 적대시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어요. 특히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호전적이고 악랄하다 하겠는데요. 재미언론인 김민우씨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의 본질이 ≪적대정책≫, ≪압살정책≫이라고 규정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부시정권은 출범하자부터 대북강경일변도정책에 매달리면서 대북고립압살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있지도 않은 북의 핵위협을 떠들면서 사찰이니 검증이니하며 오만하게도 힘에 의한 문제해결을 떠들어오고 있고 한반도주변에 무력을 증강하는가 하면 이 땅에 각종 신형무장장비들을 투입하고 각종 대규모한미합동전쟁연습을 연이어 벌이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간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통일실현의 유리한 국면이 열리던 정세가 돌변해서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과 불신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부시정권은 특히 9.11사건후 더욱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정권은 6.15공동선언을 달갑지않게 여기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른바 반테러를 구실로 시작한 전쟁을 확대해서 그 불씨를 한반도에로 옮기려고 책동하고 있죠?

**윤정원 :** 아시겠지만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온 지구촌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고 있어요. 부시정권은 9.11사건을 걸고 보복응징을 운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고 오늘은 그것을 중동지역과 이북에로까지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죠. 부시정권이 이북에 테러지원국딱지를 붙이면서 이북공격설까지 퍼뜨리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최소한의 방어력이라 할수 있는 북의 재래식무기체계까지 해체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건 북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이남뿐 아니라 이북까지 타고 앉으려는데 그 검은 속셈이 있는거죠. 부시정권의 이런 위협공갈과 강도적 압력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고 또 그런 위협공갈에 굴복할 이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시정권은 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는 한편 위정당국에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강요하고 있고 새해들어서는 미국의 호전광들을 연이어 이 땅에 들여보내 한국호전광들과 전쟁모의를 벌이면서 한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장애물의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우익보수세력들과 호전광 등 반통일세력이죠.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상전의 반통일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리려고 책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이 땅의 호전광들, 우익보수세력들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 대북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9.11사건은 우리 민족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익보수세력들과 호전광들, 반통일세력들은 9.11사건을 걸고 북의 동향 운운하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비상경계조치까지 취했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그들은 주적론을 구실삼으면서 동족을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우익보수세력들과 파쇼당국은 또한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애국세력들을 계속 악랄하게 탄압을 하고 있죠. 우익반동들, 군부호전광들은 안보니 테러방지니 하는 구실로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강화하고 각종 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익보수세력과 군부호전광들의 반북적대시정책, 북침전쟁책동에 의해서 이 땅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고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분쇄해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적 단합도, 자주적 통일도 실현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층 민중들과 여러 투쟁단체들에서는 내외 분열주의세력들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각계 민중, 통일애국세력들은 민족자주통일실현의 근본열쇠는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있다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자주통일의 원수 미국은 이 땅에서 손을 떼라, 이것이 각계 민중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민족화해자주통일협회는 지난해 12월 30일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의 망발을 규탄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각계 민중은 외세와 야합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을 모해압살하려는 우익보수세력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서총련 등 여러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한 6.15공동선언실천 2001년 총결산대회에서는 미국에 붙어 공동선언이행을 앞뒤에서 방해하는 이회창과 같은 통일역적을 반대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결의문에서는 ≪우리는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에 추종하는 민족의 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리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연대준비위원회는 성명에서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에 역행하여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투쟁결의를 다졌고 이밖에도 운동단체들과 각계의 시민단체들에서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자 :** 각계 민중은 ≪6.15공동선언이행은 국가보안법철폐로부터≫,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완전철폐하고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요. 6.15공동선언발표후 시대의 흐름과 한반도의 현실은 민족분열을 꾀하는 내외의 분열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우리 민족의 앞길이 있다는 걸 극명히 보여주고 있죠.

**윤정원 :** 그래요. 6.15공동선언후 한반도의 정세는 사대와 분열의 암운이 자주와 통일의 서광으로 바뀌고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냉전과 대결의 기류가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행과정에서 조국통일이 전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면 6.15공동선언은 이 길에서 우리 민족이 곧바로 나가게 하는 자주통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임을 심장깊이 간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 이행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투쟁에 나서는 건 오늘 우리 각계층 민중들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 7천만 온 겨레가 남북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해 투쟁한다면 내외반통일세력들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민족자주통일의 서광을 하루빨리 안아오게 될 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평양에서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 발표된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셋째조항에는 이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전쟁의 화근인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들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철저히 배격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외세와 공조하며 함께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다.≫

한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내외반통일분열주의세력을 그냥 두고는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고 통일이 이룩될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반통일분열주의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하겠죠.

# 이북을 걸고드는 미국무부차관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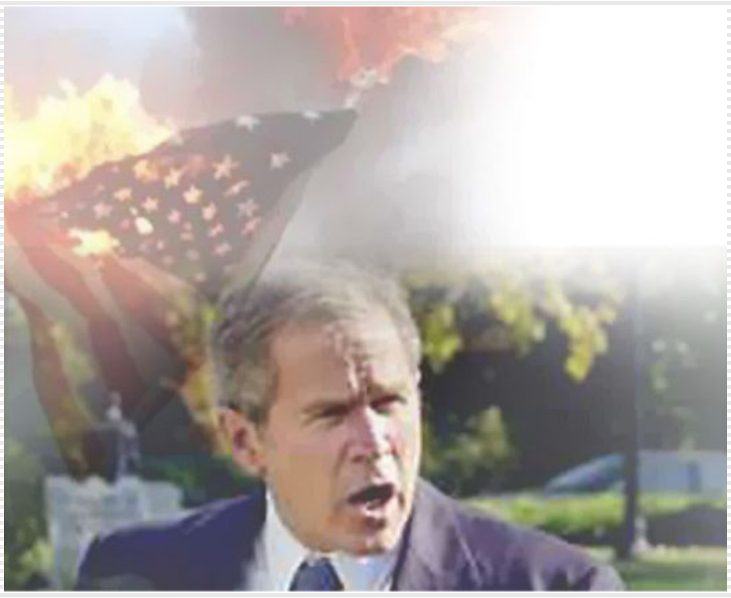
이미 보도된 것처럼 미국무부차관 존 볼튼은 최근에 있은 유엔군축회의에 나타나 이북을 걸고들며 핵사찰수용촉구니 대량살인무기개발이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 궤변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북이 1994년에 체결된 ≪핵무기해결을 위한 북미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건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북은 이미 북미기본합의문에 명기된대로 중수로원전발전소 가동을 동결시켰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 핵문제투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핵사찰성원들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핵문제로 말하면 이북이 미국에 대해 따져야하는 문제죠.

저들은 1994년에 체결된 ≪북미기본합의문≫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합의문이행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원자력발전소건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그 완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물론 그 기간에 보장하게 돼있는 중유도 제대로 대주지 않아 이북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 땅에 1천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이북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끈질긴 대북고립압살책동으로 이북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미국은 이북에 대한 강경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 한편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 땅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을 일삼으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으로해서 북미기본합의문은 휴지장으로 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한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위협, 전쟁위협의 장본인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인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부차관이라는 자가 이북에 대해 핵사찰수용이니 뭐니하고 떠든 것이야말로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망발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미국무부차관의 망발을 두고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으로, **적인 망동으로 규탄배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같은 뻔뻔스러운 행위가 저들의 대북강경북침전쟁책동을 정당화하고 북미기본합의문이행파탄의 책임을 이북에 넘겨씌우려는 목적밑에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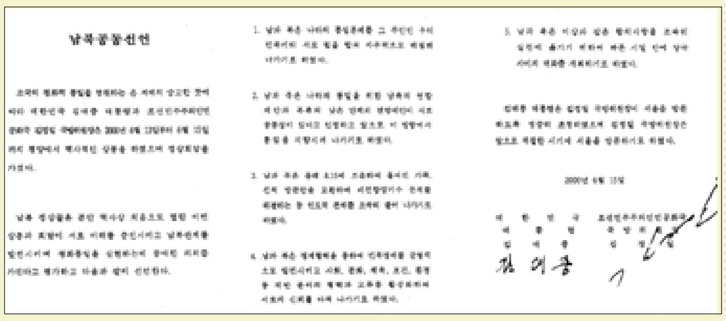
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흑백을 전도한 기치를 내들고 자행되는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민족공조로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할줄 압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합니다.

# 당국은 6.15공동선언 정신에 충실해야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 91년 1월 11일**


남북공동선언

지금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민족대단결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새해에 들어와 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내외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현실은 남북관계의 현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남당국이 매국배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자세와 입장을 버리고 시급한 결단을 내려 6.15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외의 지탄을 받고 있는 당국은 남북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 이북의 그 무슨 ≪동향≫을 운운하며 취한 ≪비상경계조치≫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여기에 각종 전쟁연습까지 벌여놓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적≫론을 고창하며 제6차 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고 애국적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면서 남북관계를 계속 긴장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의해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엄중한 상황에 처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가 지속된다면 언제 가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으며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현정부당국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반자주, 반민족, 반통일 책동을 즉각 걷어 치워야 한다.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이다.

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하는데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온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한 6.15공동선언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만고대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정부당국은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는 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현당국은 이제라도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막는 배신적인 행위를 그만 두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북과 손을 잡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옳은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1월 30일

## 총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출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그이의 위인상을 집대성한 총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전 5권)를 출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는 근 40성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우리 나라를 사상과 정치의 대국, 군사의 강국, 인간사랑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총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 비범한 군사전략가,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서술하였다.

총서 제1권 《위대한 사상리론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나아 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총서 제2권 《위대한 정치가》에서는 주체의 정치철학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로서의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총서 제3권 《위대한 령장》에서는 출중한 군사적예지와 령군술을 지니시고 탁월한 군건설활동으로 주체의 건군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천출명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총서 제4권 《위대한 어버이》에서는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총서 제5권 《위대한 인간》에서는 우리 시대 참된 인간의 전형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미국무성 차관의 사찰수용 촉구발언을 규탄
### 조선외무성대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무성 차관이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든것과 관련하여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24일에 진행된 유엔군축회의에서 미국무성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죤 볼튼은 우리의 핵문제가 국제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수용을 촉구한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

볼튼이 이번에 우리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그 무슨 《핵사찰》문제라는것을 들고 나온것은 핵문제의 본질은 커녕 조미기본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조차 전혀 모르는자의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

핵문제해결을 위한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이 누구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왔는가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기본합의문은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100만키로와트짜리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본골자로 되여 있다.

실지 합의문에 명시된 동시행동조치에 따라 우리는 1차적으로 자체의 핵계획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측이 제공하기로 되여 있는 경수로는 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이제 겨우 기초굴착정도에 머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의문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는 제대로 리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에 대한 《사찰》문제부터 들고 나오는것은 또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줄 따름이다.

경수로공사의 지연과 중유제공의 부진으로 전력손실보상문제 등 합의문리행에서 복잡한 문제를 산생시키고 있는것도 미국이고 우리 인민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그 누구를 걸고 들기에 앞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하며 이제라도 합의문에서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것이다.

##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제12차회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제12차회의가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주체90(2001)년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사업정형총화와 올해 사업방향에 대하여》,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단성원, 중앙위원 해임 및 보선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민족의 통일강령으로 틀어 쥐고 지난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선봉적역할을 다함으로써 이룩된 성과들이 총화되였다.

회의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제시한대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내이며 청년학생들을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불러 일으킴으로써 자주통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 고수리행, 북남관계진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제거의 중대과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청년학생들이 앞장 서도록 고무하며 남조선과 해외청년학생단체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 및 련대활동을 적극 벌려 나감으로써 청년학생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련대련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 나갈데 대하여 회의는 지적하였다.

회의는 남조선청년학생단체들이 우리에 대한 《주적론》철회, 《보안법》철폐, 전쟁책동분쇄 구호를 들고 투쟁하며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전투쟁에 떨쳐 나설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 3대호소, 3대제의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자
### 로동신문

오늘호 《로동신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올해에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하여 자주통일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서는것, 이것이 올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의 목표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는 바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자주통일의 국면을 여는 비결은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를 공동의 리념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이 대명제대로 하면 북남관계도 개선할수 있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있다.

북남대화에 언급하면서 론설은 북남대화는 철저히 공동선언의 정신에 충실하고 그것을 리행하는 자주통일지향적인 대화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 사람과는 계선과 차별없이 함께 손 잡고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온 겨레는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전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남조선영구강점과 전쟁준비 완성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조치
### 로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2010년까지 남조선주둔 미군부대를 재편성하며 지휘통제시설과 훈련소 등을 신설확장하려 하고 있다.또한 군사기지들에 주택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거기에 더 많은 미군가족들을 끌어 들일것을 계획하고 있다.

30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의 이 새로운 군사적조치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조선전쟁준비를 더욱 완성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걸고 드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합리화하고 대조선침략정책을 다그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들이 말하는것처럼 그 무슨 《전쟁억제력》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침략의 별동대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하여 그리고 남조선주둔 미군을 주되는 무력으로 하여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전 조선을 집어 삼키며 나아가서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강화하고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시킬것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 미군이 남아 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수 없고 전쟁위험이 가셔 질수 없다.남조선강점 미군철수문제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미국의 립장을 재는 시금석으로 된다.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할 리유가 없다.

미국은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할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침략정책을 버리고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 라남의 봉화 따라 공동사설과업관철에 더 큰 박차를 가하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 91년 1월 30일**

지금 온 나라는 당의 전투적호소 따라 뜻 깊은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총 돌격전이 힘차게 벌어 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라남의 봉화를 새 세기 혁명적진군의 봉화로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라남의 봉화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 강성대국건설시대에 타오른 21세기의 혁신과 비약의 봉화이다.

위대한 선군기치높이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려는 우리 인민의 불 타는 열정과 투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라남의 봉화는 타오르자마자 전체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으며 우리 인민의 새 세기 혁명적진군을 힘 있게 추동하고 있다.라남의 정신, 라남의 숨결, 라남의 속도에 발 맞추어 투쟁하는 혁명적분위기가 온 사회에 차넘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힘 있게 나래치고 있다.현실은 한점의 혁신의 불꽃을 온 나라에 파급시켜 새로운 비약의 시대를 안아 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라남의 봉화의 견인력과 생활력은 무궁무진하다.

오늘 라남의 봉화는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더 높이 비약하게 하는 새 세기 혁명적진군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21세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목표와 구상은 비상히 높고 웅대하다.경제를 건설해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정보화된 경제를 건설하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세계선진수준을 돌파하며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해내자는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구상이며 의지이다.지금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실천할 불 타는 맹세가 끓고 있다.라남의 영웅들처럼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낡은 틀에서 벗어 나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투쟁하며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당이 맡겨 준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해내는 완강한 투쟁기풍으로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려는것이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 같은 각오이며 의지이다.주체조선은 응당 모든 면에서 세계의 앞자리에 서야 한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새롭게 도약하여 부강조국의 백년, 천년미래를 마련해 나가려는 비상한 애국적열정이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맥박치기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라남의 봉화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되고 있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그러나 난관이 있다고 주저앉거나 조건이 어렵다고 전진속도를 늦출 우리 인민이 아니다.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압력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조건과 환경이 어렵고 점령해야 할 목표가 높을수록 더욱 분발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기질이며 제국주의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악랄해 질수록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드세차게 일으키며 더욱 용감히, 질풍같이 내달리는것이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본때이다.지금 당의 전투적호소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 돌격전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불가능을 모르고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는 조선사람의 본때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한 라남로동계급의 그 불굴의 정신이 힘차게 살아 높뛰고 있다.모든것이 부족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종전에는 몇년이 잘 걸려야 할 과제를 두달 남짓한 기간에 빛나게 수행한 라남의 숨결, 라남의 속도는 그대로 새 세기 혁명적진군의 맥박과 속도로 되고 있다.라남의 공격정신, 라남의 일본새로 온 나라가 숨 쉬고 온 사회가 들끓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21세기 강성대국의 미래가 앞당겨 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라남의 봉화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고 그 기세로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라남로동계급의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 21세기 강성대국건설자의 풍모를 지녀야 한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지에 따라 일떠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다.누구나 라남의 로동계급처럼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투철한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닐 때에만 오늘의 보람찬 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될수 있다.

우리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드팀 없는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의도와 구상을 한목숨 바쳐 실현해 가는 참다운 열혈충신이 되여야 한다.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로 심장을 불 태우며 장군님의 구상이 빛나는 열매로 맺게 하는 사람이 오늘의 진짜배기결사관철투사이다.

라남로동계급의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기개를 따라 배워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내달리려는 각오와 의지는 자기 조국이 뒤떨어 지는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기고 자기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려는 참다운 민족적자존심에서 생겨 나고 공고화된다. 라남로동계급이 현대과학기술의 집합체인 기계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견결한 애국심을 지닌데 있다.우리는 라남의 정신을 따라 배워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에서 다시한번 조선사람의 본때를 온 세상에 떨치겠다는 만만한 투지와 기백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 나가야 한다. 비약의 첫 걸음은 혁신적인 안목에서 시작되며 대담하고 통이 큰 배짱에서 세상을 들었다 놓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된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구체적실정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지 않는 낡은 틀, 고정격식화되고 비실리적인 방법들을 극복하고 자기 단위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발한 착상들을 적극 제기할줄 아는 창조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전환적계기마다에 높이 발휘된 견결한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라남의 봉화는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재더미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1950년대의 정신,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던 1970년대의 속도전의 정신, ≪고난의 행군≫의 승리를 안아 온 90년대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의 빛나는 계승이다.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고조로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열어 온 긍지 높은 력사와 전통을 이어 나가야 우리는 21세기에도 끊임 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것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혁신적으로 해나가면서도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높이 발휘되였던 숭고한 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라남의 영웅들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전사회적으로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당보에 소개되고 있는 라남의 영웅들의 투쟁이야기는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전체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으며 라남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사회적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게 하고 있다.우리는 누구나 라남의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비추어 보며 그들처럼 살며 일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남의 영웅들을 따라 배우는데서 로동계급이 앞장 서야 한다. 라남의 봉화는 위대한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시대에 우리 로동계급이 추켜 든 비약과 혁신의 봉화이다.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전체 로동계급은 라남로동계급의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 실현에서 힘 있고 믿음직한 전위부대가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얼마나 세차게 일어 나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일군들이 어떻게 분발하고 뛰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일군들은 말 잘하는 일군이 아니라 라남의 일군들처럼 땀 흘리며 뛰는 일군, 창조하며 전진하는 새 세기 일군이 되여야 한다.끊임 없는 사색과 착상으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며 경제조직사업을 효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생산과 건설의 아래단위들을 책임지고 있는 초급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남의 초급일군들처럼 집단안에 당이 준 혁명과업에 대한 절대관철정신이 꽉 들어 차게 하며 모든 성원들을 높은 기술기능수준의 소유자로, 기술혁신운동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키우고 집단을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집단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기둥이며 라남의 놀라운 성과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혁명성과 헌신성이 깃들어 있다.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실천적성과로 자기를 키워 주고 내세워 준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여야 한다.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한다.라남의 기술자들처럼 온갖 곤난과 실패를 과감히 이겨 내며 내세운 목표를 끝까지 점령하는 과학기술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온 나라에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내달리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 사상사업을 틀어 쥐고 대중을 새로운 대고조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라남의 영웅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모두다 새 세기 창조와 혁신의 봉화인 라남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올해의 총 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제157편**
**학사 김장호 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 91년 1월 25일**

안녕하십니까. 세 번에 나누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80년대에 전군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인민군대를 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으로 보나 조성된 정세로 보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이 시기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선 인간개조와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리고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긴장했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자들은 모험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세에 대처하자면 인민군대를 강화해서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의 *****을 **하게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면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며 전민 무장화와 전국 요새화를 더욱 완비하여 적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보위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시 조성된 정세를 유심히 통찰하시고 인민군대 안에서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과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써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올바른 영도의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하신 성과에 토대하여 1980년대에도 이 사업을 더욱 강도높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전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전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은 인민군대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인민군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무력건설의 함축된 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어 전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을 군건설의 기본핵으로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현단계에서 전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전면적으로 세우는 것은 군건설의 기본핵으로 됩니다.

그러면 당시 전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왜 철저히 세워야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기 때문입니다.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당과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데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 왔습니다. 인민군대 앞에는 1970년대에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서 모든 군인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신으로 키우며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을 포괄하는 인민군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섰습니다.

전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세워야 하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가 붕괴된 일부나라 군대의 실태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련을 비롯한 여러나라 당국은 군대를 비정치화 비사상화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쓰라린 교훈은 군대의 정치사상적 강화 특히 군대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것이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전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먼저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에는 주체68(1979)년 1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 **사업을 당의 영도체계 확립전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대 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인민군 당위원회 제6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을 중심으로 년간 사업을 총화하는 것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 안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사업을 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을 지니는 것은 인민군대안의 모든 ****와 군인들이 실현해야할 기본초석입니다. 그이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당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을 지닌 진짜배기 충신으로 키워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 안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전일적으로 세우기 위한 혁명적 사업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71(1982)년 6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라 인민군대 안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74(1985)년 3월에는 인민군대안에서 당정치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총정치국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직접보고하고 *****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도록 하셨고 주체77(1988)년 2월에는 전군에 당조직 관념에 기초한 군풍을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어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저히 당의 영도밑에 진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전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밑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영도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로 해서 우리의 혁명무력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충성의 집단, 주체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군대안에서 관병일치, 군민일치, 당청일치의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우선 군대안에서 관병일치의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관병일치란 말은 군대안에서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와 같이 참다운 혁명동지로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을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적 기풍을 말합니다.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혁명동지로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며 지휘관 정치일꾼들이 병사들 속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병사들은 지휘관을 존경하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인민군 군인들이 군민일치의 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군민일치란 말은 군대와 인민이 참다운 혁명동지로써 굳게 뭉쳐 서로 존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한다는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인민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의 이익을 존중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바쁜 일상을 실컷 도와주도록 하셨습니다. 인민군대로 하여금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맡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군대안에 당청일치의 기풍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당청일치란 말은 인민군대안의 당원군인들이 청년동맹원군인들을 혁명동지로 친형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적 기풍을 말합니다. 그이께서는 당원군인들이 군무생활에서 청년동맹원들의 모범이 되고 앞장에 서며 그들을 친형제로 혁명동지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청년동맹원들은 당원군인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 당의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충신의 대오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로 해서 우리의 혁명무력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충성의 집단, 주체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안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영도체계가 철저히 서있고 지휘관과 병사, 군대와 인민, 당원군인과 청년동맹원군인들이 서로 혁명동지 친형제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아리랑 축전, 통일에 결정적 국면

≪≪아리랑 축전≫을 계기로 교류협력, 대화에서 성과를 낸다면 통일에 있어 결정적인 국면을 마련할 수 있다.≫

정영철(민족통일연구소)연구위원은 30일 오후 5시 인사동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와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아리랑축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과 북 공동의 축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리랑축전≫을 계기로 본 남북교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정영철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주장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선언과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3대호소≫ ≪3대제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계기가 ≪아리랑 축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연구위원은 북은 ≪아리랑 축전≫을 통해 외화벌이, 관광개방 준비작업이라는 목적 외에 남과 북의 대화의 매개체 역할뿐만 아니라 북미간의 전향적인 대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연구위원은 ≪≪아리랑 축전≫을 계기로 남과 북이 공동의 축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남측은 불필요한 오해와 북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과감히 거두어들이고 정부당국자간 대화와 협상을 재개 △아리랑 축전을 통해서 민간급 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 △지난 남북교류의 교훈을 삼아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양측이 노력 △과거의 일방의 행사에 참가하는 형태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고 지속시킬 수 있는 통일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아리랑 실상과 인식(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연갑(사, 한민족아리랑연합회)상임이사는 ≪아리랑은 민족의 화해를 위해 남겨진 마지막 실마리≫라며 ≪공연과 직접적 참여 등에 정부가 힘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상임이사는 함께 하는 ≪아리랑 축전≫을 위해 남측의 ≪아리랑 예술단≫이 이 축전에 공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수(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신부는 ≪아리랑 축전이 월드컵행사와 연계해서 공동의 한반도축제로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에 정부 당국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김신부는 ≪아리랑 축전≫과 여러 행사의 병행 필요성을 들면서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실무대표들을 통해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을 연계해 한반도 축전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통일교육원 박갑수교수도 이번 ≪아리랑 축전≫이 ≪저항과 투쟁성보다 극복성과 화합성이 많은 걸 인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족21≫의 이찬행대표는 우리의 시각으로 ≪아리랑 축전≫을 재단하는 일부의 시각을 우려하면서 ≪아리랑 축전≫은 남측의 월드컵 행사에 북한을 염두에 둔 테러가능성과 연결돼 있기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아리랑 축전≫이 남북의 축전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미관계의 난항으로 남북간의 주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아리랑 축전≫을 민간이 함께 고민해 보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축전이 단순한 ≪관광≫차원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계기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2/01/31**

# ≪신 비지론≫과 ≪정파의 벽≫을 넘어 ≪2016년 집권≫을 이루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이론과 실천 신년특집호 권두언 발췌**

. . .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2016년에 집권하겠다≫고 분명한 시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주장해왔다. 2000년 4.13총선에 임하면서는 2014년에 집권한다고 외쳤는데 이를 2016년으로 수정했다. 2000년의 국회진입에 실패해 4년을 순연시킨 것이다. ≪2016년 집권≫. 결코 과대망상이 아니다. 절대로 허황된 생각이 아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목표다.

2016년의 정권쟁취까지는 4단계가 있다. 1단계 목표는 2004년 총선에서의 국회 내 교두보 확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뤄내야 하며 또 불가능하지도 않다. 2단계는 국회진입 4년후인 2008년인 원내 교섭단체구성이다. 원내 의석 한석도 없는 현재도 민주노동당은 여론지지율에서 자민련을 앞서 제 3당의 자리에 서있다.

하물며 원내 정당활동 4년후에 교섭단체구성이 불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 3단계는 교섭단체구성 4년후인 2012년에 제1야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4년후 집권, 이것이 목표다.

영국노동당은 1900년 창당돼 23년만인 1923년에 정권을 잡았다. 그 때의 23년은 지금의 13년과 같은 흐름이다. 민주노동당에겐 앞으로 15년의 세월이 남아있다.

대만의 민진당은 창당 14년만에 집권했다. 우리와 같은 민족민주운동, 민주노동운동이 거의 전무한 조건에서도 정권을 쟁취했다.

한국은 이미 20년이 넘는 치열한 민족민주운동, 민주노동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민족민주운동, 민주노동운동은 민중의 정치활동이다. 이 같은 역사에 앞으로 15년이 더 보태지는데 왜 이루지 못할 꿈이란 말인가. 의지와 실천의 문제다.

그리고 분명한 집권시간표가 제시돼야만 진보정당에 기대를 걸고있는 국민들의 사표심리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권시간표는 집권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이 정책정당으로 발돋움, 민중속에서 살아있는 정당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정파의 벽을 뛰어넘자. 노동자와 민중에 고통을 안겨주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지속을 의미할 뿐인 허구적인 ≪신비지론≫도 뛰어넘자. 2000년.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없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정책정당으로 그리고 대안정당으로, 진정한 진보정당으로의 ≪재창당≫을 이뤄애야 한다. 2016년 집권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첫 단계를 성취할 준비를 하자.

#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판결

피고인 : 조선일보 (대표이사 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사장 방상훈)
검 사 : 김인회, 임종일, 최규엽, 김승교
변호인 : 최민희, 김동민, 오한흥

주 문
1. 기소된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조선일보는 유죄이다.
2. 이 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아래 사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할 것.
나.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조처를 취할 것.
다.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 유

**1. 재판관할권 및 처벌근거**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 전문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민법이라고 한다)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헌장을 채택함을 밝히고 있고, 헌장 제2조는 민간법정이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생략)

**2. 공소시효**

헌장 제11조는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나타나 있듯이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3. 기소 사실의 요지**

(생략)

**4. 평결**

헌장 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은 배심원단을 ≪민족, 민주, 통일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와 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장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 법정 배심원단은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검사단이 기소한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각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신중히 평의한 결과, 기소 행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5. 선고 및 권고사항**

헌장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이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평결하는 경우에 이를 선고하며, 이와 함께 해당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사죄, 배상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법정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피고인 조선일보가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조선일보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과거에 저지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참다운 민족민주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002. 1. 30.
수석판사 : 고영구 판사 : 성유보, 오종렬

# 조선일보, 반민족 · 반민주 · 반통일행위로 유죄판결

## ≪조선일보 민간법정≫ 열려

조선일보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30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민간법정)이 각 언론사와 사회단체의 큰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민간법정은 예정보다 늦은 1시 20분 경 명계남 민간법정 운영위원장의 ≪안티조선운동의 기폭제가 될 민간법정을 시작한다≫는 발언과 함께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 재판진이 출석하며 시작됐다.

이날 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가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조선일보 신문 2부를 놓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대신 ≪민간법정 헌장≫에 의거 재판부 직권으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동민 한신대 교수, 오한흥 옥천신문 편집국장 등 3명을 조선일보의 변호인단으로 선정했다.

먼저, 김인회 변호사를 수석검사로 한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 각각에 대해 개별기소를 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일제시대 친일행위≫와 최근 ≪미국 일변도의 보도≫ 등 8가지 사례를 근거로 기소했다.

다음으로, 임종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독재정권의 찬양과 옹호에 앞장서왔던 조선일보 보도를 6가지로 구분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주 행위를 기소했다.

마지막으로,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반통일 행위에 대해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성혜림 망명설과 관련한 악의적인 보도≫, ≪9.11테러 이후 북한 위협론을 부추기는 보도≫ 등 10가지 보도를 제시하며 조선일보를 기소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남한주류언론 중에서도 오보나 ≪소설식 기사≫에 있어 조선일보가 가장 심각하다≫며 ≪교수로서 조선일보에 학점을 매긴다면 F학점이다≫고 말했다

또, 강정구 교수는 ≪≪만경대 정신≫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심문에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자 민족적 공기≫라며 ≪언론이 ≪만경대 정신≫에 대한 반통일적 해석으로 사회적, 민족적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방응모씨의 장남 방재선씨는 ≪계초(방응모의 호)가 살아있더라도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친일과 굴종의 역사에 대해서 적손으로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방재선씨는 조선일보의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은 도덕과 윤리성이 없다는 것≫이라 지적한 뒤 ≪부도덕한 경영진을 바꿔야 조선일보가 바뀐다≫며 조선일보 경영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끝난 후 김인회 수석검사는 논고를 통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해 민간법정 헌장에 의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문제≫, ≪오늘의 잣대로 과거의 부분적 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호를 했다. 특히,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의 반통일 행위에 대한 기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조선일보는 점진적이고, 미.일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일로 가자는 국민 70%이상이 지지하는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통일 신문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해 장내의 분위기를 순간 고조시켰다.

논고와 변론이 끝난 후 10분 후 속개된 민간법정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평결과 고영구 수석판사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된 보도기사에 대한 사죄와 관련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소유와 경영분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민간법정은 500여명의 방청객과 각 언론사의 뜨거운 취재열기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돼 앞으로 조선일보반대 운동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1/30

# 독극물방류범 재판 거부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지난 2000년 2월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한 주한 미8군 사령부 영안실 소장 맥팔랜드가 한국 법원의 재판 출석 요구를 10개월 째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온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의 취수원인 한강에 수천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독극물을 223리터나 방류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자 맥팔랜드의 재판을 거부하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맥팔랜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한 범죄자로서, 마땅히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이 ≪맥팔랜드의 당시 공무수행 중이었으므로 재판관할권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소파규정을 보더라도 합의의사록 제22 조 제3 항에 ≪공무라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독극물 방류행위를 공무라고 주장한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한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주한미군의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주한미군이 이와 같은 무모한 주장을 서슴치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파 규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면피해 보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맥팔랜드를 재판에 출석시켜 공무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의 재판 출석을 위한 소환장 수령 자체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재판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불평등한 한미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 없이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2001년에 개정된 한미소파로는 주한미군의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 위협과 환경 범죄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사법 주권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미군범죄에 대해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관할권이 우리 사법 당국에 주어져 사법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 회복과 미국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환경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미 소파를 전면 재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권과 한국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맥팔랜드를 재판에 회부하여 구속 처벌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범죄를 근절하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 사법 당국은 주한미군이 오산 미 공군기지나 한국 공항을 통해 맥팔랜드를 몰래 출국시키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모든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재판을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맥팔랜드를 재판에 세우기 위한 ≪맥팔랜드 공개 수배 운동≫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02년 1월 30일**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맥팔랜드 재판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시민사회단체, 맥팔랜드규탄 기자회견

**≪한국법에 따라 재판할 때까지 싸워 나갈 것≫**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맥팔랜드가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고 법원의 심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한국법에 따라 재판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기지공대위) 주최로 30일 오전 11시 미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한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지공대위의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서 ≪지난 28일 맥팔랜드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맥팔랜드를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경원(평통사)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을 통해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재판을 계속 거부하는데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

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맥팔랜드를 재판에 세우기 위한 ≪맥팔랜드 공개수배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측은 28일 법원의 심문에 대해서 ≪맥팔랜드씨가 당시 공무수행중이었으므로 재판관할권은 미국에 있다≫며 불응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소파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번 사건은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위협과 환경범죄, 그리고 우리의 사법주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한미소파를 전면 재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기돈(녹색연합) 간사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녹색연합은 지난 29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윤기돈 간사는 전했다.

한편, 2000년 2월에 발생한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은 맥팔랜드씨와 주한미군측이 한국검찰의 기소와 한국법원의 정식 재판에 불응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늘 기자회견을 시발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2/01/30**

# 현 정세와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최성원동지에게 보내는 통일여명의 공개질의 (편집국 보도 51호)**

먼저 ≪두 개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하 ≪두개전선≫)에 이어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이하 ≪이론문제≫)라는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며 민족민주운동상의 긴절한 이론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크게 기여한 최성원동지(대오)에게 변혁적 경의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편집국이 동지에게 공개질의를 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으며 그간 정세도 이론논쟁의 초점도 바뀌었습니다. 한편 동지는 ≪이론문제≫에서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의 변화로 답변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도 되었고 해서 새롭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동지가 지난번과 이번의 공개질의를 다함께 참조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사색과 연구의 초점은 언제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을 잘 받들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미약한 역량이나마 민족민주운동을 위하여 값있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개질의에는 이러한 인식이 바탕에 놓여있습니다.

1. 우리는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영도의 승리이며 원대한 통일혁명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두 선언으로 정세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두 선언에는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에 대하여는 몇년전부터 김명철선생과 한호석소장이 좋은 글들을 연속발표하여 민족민주대오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생 모두 국내입국이 정보원에 의하여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호석소장은 자신의 논문에 장군님께서 6.15공동선언 이후 10-15년이면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하셨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에 대한 동지의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2.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발표된 여러 글들을 연구분석한 후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전취목표는 민족자주위업완성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이며 당면전취목표는 민족통일기구수립과 일반민주주의실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전술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전략적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교두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일반민주주의실현과 민주연립정권수립의 관계에 대하여도 언급해주기 바랍니다.

3. 민족민주운동이 통일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전선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전위당의 견해와 함께 최성원동지의 이론을 연구분석한 후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동지도 짐작하였겠지만 지난번 공개질의시 우리가 궁금해하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동지의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당면해서 민족민주대오내에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과 민중생존권쟁취강령의 반파쇼민주주의전선의 상호관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양자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언급해주기 바랍니다.

➡

광고

# 위대한 장군님 탄신 60돌 기념특간호를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편집국 보도 49호) / 주체91(2002)년 2월 1일**

올해 2월 16일은 민족최대명절이며 인류최대축제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대경사일입니다. 뜻깊은 2월의 대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다양한 차원의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통일여명 14호를 ≪위대한 장군님 탄신 60돌 기념특간호≫로 발간합니다.

≪탄신60돌특간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백두장군≫란에 집중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이론, 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군혁명영도와 통일혁명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특집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탄신60돌특간호≫에서는 또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기념행사와 기념활동들을 종합하여 ≪백두청년≫란에 종합게재하고 있습니다. ≪백두청년≫란은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대외기관지인 ≪통일여명≫에 수록된 대내기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기념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투쟁과 활동은 2월 한달내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차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 활동들은 ≪통일여명≫ 15호에 승리적으로 총화될 것입니다.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이 밝히고 있듯이 ≪온 세계가 우러르는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올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4. 통일전선사업에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원론적으로 그 주체는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의 변혁적 당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민주전선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의 경우 민족민주전선이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바로 진보정당입니다. 지지난해말 한백연동지는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에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으로 진보정당이 가장 적합하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올해는 중요한 양대선거가 있으며 특히 대선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여부에 따라 향후 정세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양대선거에서 민족민주세력이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개혁세력과 연대하며 친미수구세력을 고립타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개혁세력과의 일체 연대를 거부하는 경향과 반대로 ≪비판적 지지론≫을 추종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거시기에 후보전술은 언제나 민족민주대오의 최대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 동지는 보안법철폐의 의의를 강조하며 그 책임적 주체는 바로 민족민주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역시 대중투쟁이지만 의회투쟁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안법철폐는 올해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차기 총선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안법철폐의 구체적 실현경로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7. 미군철거투쟁의 주도역량이 북측 반제자주역량이라고 하여 이를 남측 민족민주역량이 홀시할 수는 없습니다. 동지의 견해대로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구국통일전선 혹은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 상승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전선의 목적의식적인 조직정치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미군철거투쟁은 전략적 구호와 전술적 단계의 요구를 배합하며 묘술있게 전개함으로써 반미투쟁을 대중운동의 단계에 올려세우는 것이 당면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보완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8. 우리는 언제든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안전하고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일 것입니다.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이나 전위당의 다양한 글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을 총노선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동대오 일각에서는 현정세를 전쟁정세로 보며 반미반전을 총노선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반미투쟁이 불변의 전략으로서 결코 늦추어서는 안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6.15공동선언실현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대선거가 있는 해로서 민주화투쟁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세와 총노선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 동지가 지난 논문에서 밝힌 이북에는 혁명역량이 통일전선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견해가 운동대오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글 ≪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견해≫에 나와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현재 형성된 민족통일전선의 장래운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보완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0. 올해는 한민전의 신년서한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민주대오의 한해 총노선수립에서 신년서한이 가지는 절대적 비중을 볼 때 파격적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2년 전위당의 신년메시지는 있다≫는 글에서 이 조치는 ≪하나의 혁명영도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란 동지가 ≪두개전선≫에서부터 운을 떼고 ≪이론문제≫에서 모를 박은 중심내용입니다. 때가 되었다면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관계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공개질의에 대한 동지의 답변은 굳이 문답식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한 계기에 적절한 형식으로 발표되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의 이론연구활동을 총화하며 2월중에 ≪민족민주운동론≫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동지의 견해가 발표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지의 논문은 우리의 이론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지(대오)의 건투를 바랍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 2월 1일**
**서울**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박성철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부장과 리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리후락**
**1972년 7월 4일**